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1/12℃ 목포 2/10℃ 여수 2/10℃

단기 4344년 (음력 2월 2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35호 1판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오후 '20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대국민업무보고'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값, 서울 강남 한채 = 보성 25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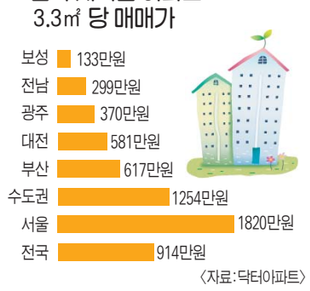
3.3㎡당 서울 1820만·광주 370만·전남 299만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광주에서는 5채, 전남에서는 6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별 3.3㎡(평)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 평균은 1820만원으로 5대 광역시와 중소도시를 합한 지방 평균(499만원)의 3.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평균은 3.3㎡당 1254만원으로, 지방보다 2.51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고 신도시 1310만원, 경기 903만원, 인천 799만원 순이며, 지방에서는 부동산 '열풍'이 부는 부산이 617만원, 울산이 605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지역별 아파트 3.3㎡ 당 매매가



〈자료:닥터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낮은 곳은 호남지역으로 전남이 299만원, 전북 351만원, 광주 37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는 경북(386만원)·강원(389만원)·충북(445만원)·충남(493만원)·제주(494만원) 등 도단위 광역단체보다도 매매가가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3337만원)이 1위, 경기 과천(2897만원)이 2위를 차지했고 서초(2892만원), 용산(2544만원), 판교신도시(2430만원), 송파(24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3.3㎡당 매매가가 가장 싼 곳은 보성(133만원)이었고, 전북 무주(153만원), 영암·전북 고창(각 163만원), 충북 보은(164만원) 순으로 저렴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로 보성군에서는 25.1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지방 매매가는 오르고 서울 등 수도권은 떨어지면서 가격 차이는 지난해보다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 차액은 3.3㎡당 1381만원이었으나 이달 1321만원으로 격차가 60만원 감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亞문화전당 성공, 콘텐츠에 달렸다

광주 방문 정병국 장관 "세계적 공연물 유치 등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의 문화를 담고 창출할 수 있는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으로 23일 광주를 첫 방문한 정병국 장관도 우수한 콘텐츠가 전당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성공의 열쇠라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인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2011년 대국민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전당 건립사업과 함께 콘텐츠 발굴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콘텐츠 발굴과 관련 ▲아시아청소년문화축제 등 이벤트 개최 ▲아시아중심대학 선정 및 위탁교육 ▲세계적인 대표 공연물 유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시가 주체가 돼 각계 인사들로 콘텐츠위원회를 구성해 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원래 전당 건립은 정부가 맡고 콘텐츠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콘텐츠 부분이 매우 중요해 개관하는 데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이 부분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날 광주에서 콘텐츠 부분을 유독 강조한 배경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인 전당 건립이 지역 내 마찰로 잇따라 연기된데다 지역 내에서 여전히 전당 운영과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슷한 문화복합시설이 이미 설립돼 운영중이어서 이와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 전당 내 들어설 예정인 창조원이나 아시아문화정보원 등 추상적인 개념을 서둘러 구체화하고 전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지지부진한 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1년 문화분야 예산이 3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2023년까지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2년 간의 문화예산 모두를 쓰는 셈"이라며 "공사가 지연되면서 1000억원이 이월돼 앞으로 매년 1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이 제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랜드마크, 옛 전남도청 별관 등 그동안의 지역 내 마찰을 의식한 듯 "광주만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에 열려 있는 아시아의 광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접근할 때 아시아의 콘텐츠를 한 데 엮어내 문화중심도시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방사성 공포' 전세계로 확산

미국, 후쿠시마産 등 유제품·채소·과일 수입 금지

프랑스 日식품 통제 강화…한국도 수입 보류 검토

미국이 22일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 유제품, 채소와 과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일본산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체계적인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후쿠시마발 방사성 오염 식품 공포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성 오염 물질이 태평양과 미국 본토, 대서양을 건너 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 미량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본산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자 22일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 유제품, 채소와 과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채와 우유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야채 등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FDA는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된 방사선량이 적지만 방사성 오염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한 정부 관리는 "프랑스가 21, 22일 EU 집행위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조직적인 통제계획을 마련, 시행하도록 요구했다"며 "통제계획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11개 품목의 야채에서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전날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산물은 시금치, 원유(原乳) 뿐이었으나 이날 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나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심각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채취·생산·제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 발급 비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 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랜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MUSEO 뮤제오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